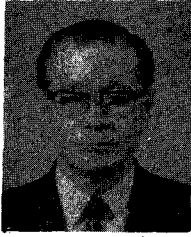


韓牛肥育事業과 稅制의 考察



金 洞 哲

〈농촌진흥청 농림공무원
교육원 전학생과장〉

차 례

1. 머리말
2. 韓牛의 肥育事業을 計劃할 때 經營收支를 어떻게 볼 것인가?
3. 稅制가 肥育事業에 미치는 影響
 - 가. 畜產業의 免稅措置
 - 나. 法人의 利益配當과 綜合所得稅

1. 머리말

韓牛의 肥育이란 참으로 때를 만난 感을 갖게 하였다. 1976. 9. 4 國際심포지움에서 高大의 金煥鄉 博士가 指摘했듯이 韓牛의 經濟能力은 產肉能力으로 一元化되었다는 말에는 不肖 筆者도 同感이다.

役用으로써 重要視하던 時節이 어제 같더니 어느덧 變하여 고기소로써 重要視되었는지 隔世之感이 變하고야 말았다.

요즈음에 와서는 政府에서도 고기의 量的確保에 血眼이 되었고 차츰차츰 돈값인 사람들도 소의 肥育事業에 머리를 돌려주리만큼 觀心度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막상 企業家들이 畜產事業에 觀心을 갖고 畜產事業中에서도 소의 產肉事業에 果敢하게 投資를 할 것인가? 하는 點에 있어서는 疑門이다 아니 果斷性을 못내리는 것이 普通이라고나 할까? 筆者가 1974年 以後 수많은 企業家들과 만나왔고 相議對象이 되어서 甲論之迫도 해보았지만 같은 利益이라면 生物이자 더러운 畜產은 안한다는게 一般的이었고 間或 政府도 勸獎하는 일이고 뜻있는 裏面이 있어서 產肉事業을 해 보아야 하겠다고 認定하면서도 莫上 設計를 해

본 후에는 이 程度의 可得率을 갖이고는 產肉事業에 投資하기 어렵다는 것이 結論이었다.

即 오늘날의 우리나라 企業家들은 可得率이 적어도 30% 以上은 바라다 보아야 畜產事業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筆者의 見解였다. 다시 말해서 2~3次 產業水準의 可得率이 나와야만하지 그 以下의 利益을 내다보고는 못하겠다는 것이다.

極端의인 例로는 호텔이나 빌딩을 하나 지어 놓으면 세만 놓아도 可得率이 30% 以上인데다가 建築期間만 지나면 그 이튿날부터 방세가 나와서 資金이 돌게 되고(資金循環이라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2~3次 產業을 計劃하다보면 融資도 되어서 내돈 안갓어도 事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畜產事業中에서는 기껏십마리의 소 肥育이라면 몰라도 所謂 企業的인 規模에는 融資가 된다는 말도 못 들었으려니와 利益에 있어서도 적지 않으나 反問해 오는데는 筆者도 自信있게 對答을 못하여 어떤 때에는 筆者 自身의 無識을 뉘우치기도 하려니와 쥐구멍에 들어만가는 氣分일 때도 있었다.

따라서, 政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다 次元 높은 位置에서 적어도 畜產事業中에서도 이 肥育事業만은 앞으로 80年代를 내다보는 需要와 供給上의 切實한 일이니만큼 좋은 고기는 비싼 값으로 外貨獲得하는 면에 돌리고 값싼 고기는 切半이나 半價格으로 들여다 먹을 수 있으니만큼 그러한 政策下에서 돈도 대주고 行政도 簡素化하여 이에 들어가는 飼料政策에도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기왕에 飼料政策말이 나오게 되었으니 말이

지만 우리 畜産을 하고자 海外에서 들여다 쓰는 飼料도 化學製品을 만들기 위하여 들여다 쓰는 原油導入과 같은 觀念으로 봐달라는 것이다. 飼料도 原料라는 意味에서 取扱이 되어야 하고 肥育을 한다 하면 一種의 加工業 이라고 生覺해 달라는 것이다. 다만 節度야 있어야 하므로 量을 定한다든지 價格을 定한다는 따위, 그리고 飼料의 加工, 保管, 融通等 一連의 造作의 差異는 있을 수 있더라 하여도 飼料導入이라는 것이 마치 國事를 망치는 일처럼 外面하지 말아달라고 외치고 싶은 心情이기에 한 마디 해 두는 바이다.

2. 韓牛肥育事業의 經營收支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韓牛肥育事業의 大略的인 經營收支에서 所得率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를 다 시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意義가 크겠다.

먼저 얼마만한 크기의 素牛를 가지고 얼마만한 期間을 먹여서, 팔아서 收支를 打算하여

볼 것이냐 하는 것이다.

即 다음 表1中에서 몇個月令에 있는 것을 素牛로 사들여 갖이고 事業에 들어갈 것이냐를 먼저 定해 봐야한다.

먼저 이를 定하려면 우리 國內의 小市場에서 賣買되는 소의 市勢로 보아서 그 몇個月後 짜리가 体重에 比하여 값이 싸나 하는 點을 머리에 두고 다음에는 어느때 것이 사들여온 後에 日當增体量이 많고 弊死率이나 羅患率이 적으며 飼料는 적게 먹어 줄 것이냐 하는 點을 考慮하여야 할 것이며 萬一 去勢를 하여야 한다면 너무 큰 것을 去勢하며는 去勢效果나 스트레스面을 生覺할 때 200kg을 넘어서는 不適當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考慮에 넣고 나아가 다음 表2를 또한 標準삼아서 深思熟考하여 事業形態를 먼저 定하여야 할 것이다. 이 事業形態가 定하여진 後에는 經營費의 近 35%에 해당하는 飼料費가 얼마만큼이나 들 것을 計算하여야 한다.

表 1 肥育事業의 發育成績表

發育成績	個月令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80	105	135	165	195	227	259	291	323	365	385	415	443	470	496	520kg		
	肥育期間																	

表 2 韓牛 ♂의 肥育飼養標準

月 令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備考	
生 體 重	135	165	195	227	259	291	322	355	385	415	443	470	496	520	kg	
飼 料 別	育 成 飼 料						肥 育 飼 料									
濃厚飼料給與量	678						2,250								kg	
粗飼料給與量	340						825								kg	
1日1頭當增体量	0.98			1.07			1.02			0.88			kg			
全期間通算(日當)	0.98														kg	
濃厚飼料要求率	3.37			5.42			7.12			9.33						
全期間通算率	6.02															
生 存 率	98%										97%					
平均1頭1個月															kg	
飼料給與量	濃厚	99	117	135	154	173	193	206	218	231	238	244	249	249	249	
		(3.3)	(3.9)	(4.5)	(5.0)	(5.8)	(6.4)	(6.9)	(7.3)	(7.7)	(7.9)	(8.1)	(8.3)	(8.3)	(8.3)	
()內1日平均	粗飼	50	60	70	80	80	80	80	80	80	85	85	85	85	85	kg
		(1.7)	(2.0)	(2.3)	(2.7)	(2.7)	(2.7)	(2.7)	(2.7)	(2.7)	(2.8)	(2.8)	(2.8)	(2.8)	(2.8)	

이 表 2 에 依하여 飼料을 먹이되 3~8個月 後인 期間을 育成時期라고 보고 8~18個月 後까지를 肥育期間이라고 生覺하여 飼料의 配合 給與는 育成期의 DCP 를 12.91% 肥育期에는 10.20% 를 그리고 TDN 은 育成期 72.13% 肥育期 72.24% 를 먹인다고 假定하여 計劃하면 된다.

그러면 事業形態는 요즈음의 國內事情을 前記한 여러가지 長端의으로 미루어 볼 때 아무래도 育成期間을 지난 8個月後인 尙를 市場에서 사들여서 政府가 바라고 있는 500kg 以上 짜리로 肥育해서 낸다고 한다면 18個月 後인 520kg 平均을 만드는 事業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러한 形態로 몰고 간다면 10個月間이 回轉期間이 될 것이고 購入價格은 어중면 소라는 意味에서 比較的의 市場價格이 低廉할 것이며 病에도 強하고 飼育하는데 있어서 손쉽지 않을까 生覺이 되며 日當増体量도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때에 飼料는 濃厚飼料 2,155kg 와 粗飼料 1,020kg 만 먹이면 肥育이 끝나게 된다고 假定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때 1頭의 肥育에 要하는 經費를 다음 表 3 에서 計算하여 본다.

即 肥育한 소 1頭를 生産하려면 507,552W 이 들고 그 肥育牛를 處分하면 $1,200W \times 520kg = 624,000W$ 을 받어서 116,448W 은 남는 計算이 된다. 따라서 可得率로 본다면 23% 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税金과 施設裝備 등의 償却費 따위는 控除해 있지 않다.

前記한 바도 있듯이 企業이다 할 때는 적어도 人件費, 運搬費, 器具費, 消耗品費, 燃料費, 電話, 電氣料, 菜品費, 旅費 및 其他 雜費等을 계산해 넣어야 하고 前記한 金利 税金 및 償却

費等을 計定치 않을 수 없다.

大體的으로 人件費外 여러가지 費用을 管理費라고 하여 嶺南大學이 試驗한 成績은 11% 였고 水原의 S社에서는 28%, 日本의 畜産의 研究誌第26卷第號에서는 23% 를 成績으로 紹介되었다. 그러나 筆者의 經驗으로 보아서는 素牛代와 飼料代를 加算한 金額을 資本金으로 볼 때 이의 20% 는 8% 의 管理費와 12% 의 金利를 加算하여 20% 가 타당하겠다고 生覺하며 農家飼育일 때는 보다 적게 봐도 無關하리라고 여겨진다.

何如間에 1頭當 飼育經費로 보아서 23% 의 可得率은 企業으로써 數百마리 以上이 되고 數千萬원 以上 億台의 資本化가 될 때에는 이 可得率은 다시 적어지는 것은 變한 事實이 되어 20% 程度라고 生覺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前記한 바도 있듯이 企業家들이 보는 眼目에는 이 23% 의 可得率을 갖이고는 하기 싫은 事業이라고 보지 않는다. 하물며 이 보다도 적게 利益이 나온다고 計劃이 된다면 더욱 肥育事業에 對한 意慾은 없어지고 말게 된다.

더우기 飼料價格이 現在線에서 또 오른다는 지 素牛價格은 오르고 販賣價格은 내린다는 局面이 생긴다면 肥育事業은 사라지고 말게 된다

3. 稅制가 肥育事業에 미치는 影響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쥐어짜고 쥐어짜서 한푼이라도 더 나올 수 있는 肥育事業의 形態와 事業運營計劃을 했어도 可得率은 23% 金利는 12% 밖에는 못보았고 一般管理費를 보통 11~20% 線까지 보는 것을 8% 線에서 늘렸지만 企業家들이 볼 때는 이것도 不滿이어늘

表 3 肥育牛頭當 飼育經費

1. 素牛購入量	900W (生体重kg當價) × 227kg = 204,300W
2. 濃厚飼料費	92W (配合飼料kg當價) × 2,155kg = 198,260W
3. 粗 "	20W (粗 ") × 1,020kg = 20,400W
4. 其 他	(素牛代 + 飼料代) × 20% = 84,592W
合 計	507,552W

나아가서 稅制上的 이모저모를 考慮하지 않을 수 없는 現實에서 본다면 참으로 問題點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 畜産業의 免稅措置

肥育事業도 다른 畜産業과 같이 畜産業이라는 概念에서 免稅가 되어 土地를 사고 施設을 하며 소를 먹여서 「利益이 發生한 때부터」 3年까지는 免稅이고 그 다음부터 50%의 免稅가 된다 하는 것은 周知하는 事實이다. 이것은 企業이거나 個人的 事業이거나 매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서 事業을 하여 얻어지는 事業所得에 對하여는 그러한 惠擇을 준다는 것이다. 하두 畜産이 어려운데다가 利益은 적으니까 이를 保護하기 위하여 이러한 措置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既히 畜産을 始作한지 오래고 利益이 나오기 始作한지 오래된 사람은 이해 分도 課稅對象이 된다.

이렇게 쓰다보니 마치 稅制에 對한 解說家 같은 느낌이지만 實인즉 다음의 會社織인 法人事業과 綜合所得에 따르는 綜合所得稅를 強調하기 爲해서이다.

나. 法人의 利益配當과 綜合所得稅

筆者는 數年間 그 어느 분에게 韓牛의 肥育乃至 고기의 輸出事業을 하라고 勸동이었고 會社組織으로 근사하게 몰고 가보자고 勸하여 답이나 기척首치고 돼지나 먹여가며 棼돈이 모아오던 순수한 個人畜産을 株式會社의 간판을 걸게 하고 事務室을 갖추며 農家用車도 굴리게

했다. 그리하여 事業이 始作되어 2年이 지나서 決算期에 決算을 해 보니 利益도 桴찰 남아 주었다.

남의 小說같은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하자니까 本來의 부지런과 節約 甚至於는 밤을 낮으로 알고 된 것이다. 아니 한 때는 神經性疾患으로 腹部切開의 手術을 다 받았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莫上 利益의 配當을 받게 되니 25%의 配當稅를 물게 됐다. 놀랐다. 筆者도 놀랐다. 이 놀랐다는 것은 그만큼 無識했기 때문이라면 그만이지만 이것이 畜産이기에 한번은 生覺해 불만한 일이 아닐 수 없어서 提起하는 바이다.

企業主 個人은 配當稅를 물고 나면 所得은 다시 綜合所得이 되어 綜合所得稅라는 課稅를 지녀야만 했다. 所得稅法 第70條에 綜合所得稅率에 있어서 所得稅課稅標準確定申告 및 自進納付計算書에 依하여 附課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다음 表4로서 한 例를 들어서 計算해 보기로 한다.

即 會社를 만들어 가지고 肥育事業을 한 이 社長이 月給으로 年額의 6,000,000W과 若干의 不動産을 갖었어서 세 納서 들어온 1,000,000W의 收入과 前記한 會社에서 얻은 利益配當 50,000,000W일 때의 綜合所得稅의 產出稅額은 자그마치 32,275,000W이 되더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表5 諸稅額控除算出表에 記載된 稅額은 勿論 꺼끗이 控除해 주는 것도 事實

表 4 綜合所得稅算出例

註: 1. 勤勞所得	年 6,000,000 W
2. 不動産所得	" 1,000,000
3. 株式會社株式利益配當所得	" 50,000,000
	57,000,000

計算

$$57,000,000 - 180,000 (\text{勤勞所得稅控除}) = 56,820,000 (\text{綜合所得金額})$$

$$56,820,000 - 180,000 (\text{基礎控除}) - 120,000 (\text{配遇者控除})$$

$$- 240,000 (\text{扶養家族控除 2人}) = 56,280,000 (\text{課票})$$

$$56,280,000 (\text{課票}) \times 70\% - 7,120,800 (\text{屢進控除額}) = 32,275,200$$

(產出稅額)

表 5 諸稅額控除算出例

1. 配當稅額控除

$$56,280,000 \times \frac{50,000,000}{56,820,000} \times 40\% - 8,120,800 \times \frac{50}{100} = 9,504,963$$

(49,524,815) (19,009,726) (配當稅額控除)

2. 所得稅決定稅額

$$32,275,200 - 9,504,963 = 22,770,237$$

3. 防衛稅算出稅額

$$22,770,237 \times 20\% = 4,554,047$$

4. 總負擔稅額

$$22,770,237 + 4,554,047 = 28,462,795$$

다시

$$\text{總負擔稅額} - \text{源泉稅額} - \text{中間手納稅額} = \text{確定된 告示納付할 稅額}$$

(住民稅는 告知納付이므로 除外)

이다.

다시 말해서 法人稅 防衛稅 源泉稅 및 中間豫納한 것들은 빼준다.

그러나 肥育事業 때문에 法人體인 會社를 했다가 配當稅와 綜合所得稅로 인하여 利益의 大半이 稅金으로 나라에 받치게 되니 世上을 모르고 利益은 모름지기 내 것이다라는 生覺만을 갖인 사람은 한번쯤은 당황할 일이 아니냐 말이다.

勿論 그러한 時代도 이미 지났고 企業人이 오로지 내 것이라고만 生覺할 수 있는 社會도

아니다. 公人으로써 從業員과 더불어 社會에 寄與하고 國家의 發展에 보다 努力하는 次元에서 肥育事業의 價値觀을 갖어야 마땅하다.

끝으로 韓牛의 肥育事業이 國內이건 輸出이건 展望이 밝게 봤기 때문에 「양계」誌를 빌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지 半年이 넘었고 앞으로 需要와 供給에 있어서는 보다 次元 높은 觀點에서 力點을 두어야만 하리라고 보아 淺見을 記術하여 江湖의 諸位께 參考가 되면 다행으로 生覺한다.

